

지역 소식 통

정읍시, 국립숲체원 조성
주민 설명회 8일 개최

정읍시가 산림 체험교육과 건강 증진을 위한 국립숲체원 조성 본격 추진한다. 이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오는 3월 8일 오전 11시 연지아트홀(정읍시 중앙로 73)에서 개최한다. 국립숲체원은 국민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산림 속에서 편안한 휴식과 건강증진, 교육·문화적 가치를 제공하는 특성화된 산림 체험 교육 시설이다. 현재 전국에 국립황성숲체원을 포함해 6개소가 운영 중이다.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총 270억원의 녹색자금을 투입해 북면 북흥리 산26-1에 국립숲체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조성 대상지까지의 접근을 위해 38억원을 투자해 진입도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설명회에서는 산림청·한국산림복지진흥원 관계자들이 국립숲체원 조성과 관련한 기본계획 구상안을 발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 조성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건강한 조직 문화
개선 캠페인 전개

부안군은 4일 부안군청 2층 대강당에서 진행되는 3월 열린 공감의 날 행사에서 건강한 조직 문화 정착을 위해 존중과 배려를 상징하는 배지를 배부하고 전 직원이 함께하는 조직 문화 개선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배부된 배지는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착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으며 군 심벌과 '맞손' 이미지를 결합해 협력과 연대, 이해와 화합의 의미를 담았다. 특히 군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냈으며 이를 통해 직원들은 군민과 행정, 직원과 직원 간의 배려와 존중을 더욱 체감하고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캠페인에서 진행된 손피켓 퍼포먼스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존중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군민이 바라보는 때까지 노력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이학수 정읍시장, 시민 속으로

23개 읍·면·동 순회 본격적인 소통 행보 시작

이학수 정읍시장은 4일부터 18일까지 23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본격적인 시민 소통 행보를 시작했다. 이번 '시민과의 대화'는 각 지역의 시민들과 직접 만나 시장 방향과 주요 정책을 설명하고, 현장에서 직접 질문을 받아 답변하는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시민과의 격의 없는 소통을 통해 정읍 발전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시장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책임행정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4일 영원면에서 열린 시민과의 대화에서 시민들은 생활 속 불편 사항과 시장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으며 이 시장은 관련 부서 국·소장들과 함께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소통의 폭을 한층 넓힌다는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시민과의 대화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시장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심덕섭 고창군수, 찾아가는 민생탐방 경로당 방문

사거리경로당 등 20곳 찾아... 경로당 양곡지원 등 특화정책 설명

심덕섭 고창군수가 지난 3일 관내 20개 경로당을 순회 방문하며 어르신들의 안전을 점검하고 군의 노인복지 지원정책을 설명했다. 이날 심 군수의 경로당 방문 일정은 오전 10시 대신면 사거리경로당을 시작으로 오후 5시 신덕경로당까지 모두 20곳을 찾았다.

심 군수는 어르신들을 만나 고창군의 특화 노인복지 정책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지난 겨울 군은 관내 617개소 회원수를 고려해 작은 곳은 최소 4포에서, 많은 곳은 최대 9포까지 총 3271포를 차등 지원했다. 여기에는 미등록

경로당 9곳도 포함됐다. 또한 경로당 냉·난방비 집행 잔액에 대해서도 밀반찬 구입 등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조금급 시행령이 개정됐다. 쓰고 남은 냉·난방비를 운영비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은 경로당 회원들의 오랜 숙원사항이었다.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운영비 부족을 겪어온 경로당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외에도 전체 경로당에 급식관리를 지원해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모여 식사 하고, 안전하고 편하게 지낼 수 있게 됐다. 오시중 사거리경로당(대산) 회장은 "직접 경로당을 찾아와 안전을 챙겨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경로당은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영세·비정규직 근로자 법률 지원사업 공모 선정

정읍시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2025년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 상담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시는 영세사업장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등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약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노동 교육과 법률 상담을 제공하게 됐다. 주요 지원 내용은 임금체불 진정, 부당한 징계·해고 등 구제신청을 위

한 노동법 관련 자문, 각종 서면 작성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노동 인식 개선을 위한 '노동인권을 지켜주세요' 캠페인의 일환으로 여름철 이동노동자(택시·버스·배달 종사자)를 위한 생수 나눔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정읍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센터장 최영식)가 수행하며 노동 교육과 상담을 원하는 근로

자는 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노동약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죽도항(고창군 부안면 봉암리 683일원)일원에서 어촌뉴딜 300사업 준공식을 열었다.

‘지역 어촌관광 발전 혁신모델’

고창군, 죽도항 어촌뉴딜300사업 준공... 선착장 등 조성

고창군이 죽도항 주변 정주여건과 관광인프라를 대폭 개선해 지역 어촌관광발전의 혁신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4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죽도항(고창군 부안면 봉암리 683일원)일원에서 어촌뉴딜 300사업 준공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심덕섭 고창군수, 윤준병 국회의원, 김만기·김성수 전북특별자치도 도의원, 임종훈 고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전북특별자치도 부안해양경찰서, 한국어촌공단 서남해 지사, 부안면 기관·사회단체 및 지역주민 60여명이 참석했다. 죽도항 어촌뉴딜300사업은 어촌의 인프라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진행된 대규모 프로젝트로, 2021

년부터 총사업비 91억원이 투입됐다. 안전하게 배를 정박할 수 있는 선착장과 어항안전시설 및 조망시설 설치됐다. 또한, 해안둘레길과 탐사르생태학교, 갯벌전망대 리모델링, 갯벌건강공원 등을 조성해 고창갯벌 탐방객과 여러 방문객이 머물다 갈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외에도 빈집정비와 주거환경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이 진행돼 지역 주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날 준공식에선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짐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창=김영식 기자

‘별빛바다어린이집’ 개원

부안군, 변산면 격포초교 내 5번째 국공립어린이집

부안군은 지난달 28일 관내 5번째 국공립어린이집인 '별빛바다어린이집'을 변산면 격포초등학교 내에 개원하고 개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원식에는 정화영 부군수를 비롯해 양정우 변산면장, 김수안 부안교육지원청 교육장, 임현숙 격포초등학교 교장, 예비 학부모 등 15명이 참석했으며 경과보고, 떡케이크 커팅식, 기념촬영, 시설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군은 당초 오는 2026년 준공 예정인 학교복합시설(변산돌봄문화센터)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변산면의 유일한 어린이집이 휴원하게 됨에 따라 보육 공백 최소화를 위해 격포초등학교에 임시시설을 마련해 국공립어린이집인 별빛바다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게 됐다. /부안=김석진 기자



이후 학교복합시설 준공 후에는 별빛바다어린이집도 이전할 예정이다. 별빛바다어린이집은 보육실과 유희실 등 0세에서 2세까지의 영유아 20명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로 조성됐으며 변산면 시내와 가까워 접근성이 좋고 초등학교 내에 위치해 있어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